

파키스탄 면

본래 인도와 파키스탄은 한 나라였으나, 1947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인도의 서북부에 자리 잡은 나라가 파키스탄이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배울 때 인더스, 갠지스(ganges)강의 인도 문화라고 하던 것이 두 나라로 갈리면서부터 다소 혼란이 오고 있으나,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을 끼고 있어 인도보다 한결 더 오랜 면화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약 5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면화 재배 세계 4위국이다.

1923년 영국인 고고학자 마샬이 발굴한 인더스 문명 발상지의 대표적 유적인 모헨조다로(Mohenjo-daro)는 이집트처럼 큰 신전이나 왕궁은 없지만, 근대 도시 설계상 깜짝 놀랄만한 가치가 있는 유적이었다.

이때 파키스탄에서의 생업은 농업이었고 보리, 깨와 같은 농작물과 함께 면화가 재배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파키스탄의 면화생산은 인더스 강을 끼고 인구 1억 6천만 명의 인구에 기반을 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 및 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 면화생산 대국이 되었다. 파키스탄 면은 잎이나 헝잡물이 많은 단점이 있으나, 가격이 비교적 싸고, 색상이 희며, 의외로 광택이 좋다. 또한 섬유강도가 커서 테 변수용 원면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1914년 처음으로 미국면종의 4F 품종이 도입된 이래 교배, 선별에 의한 품종 개량이 지속되면서 데시 면에서부터 점차 섬유강이 긴 쪽으로 개량이 진행되고 있다. 4F 종(3/4-7/8 inch)에서 LSS 종(7/8-15/16), NF 종(15/16-1), 289 F 종(1-1 1/32), AC 134 종(31/32-1 1/32), Lassani 종(1 1/32-1 1/8)까지 다양하다.

파키스탄 중앙면화연구소에서는 경제적인 면화생산을 위하여 종자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충해 대책이 쉽고, 소량의 비료만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짧고 강한 면화, 조숙하면서도 수율이 높은 면화의 생산은 물론 가늘면서도 강한 면화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파키스탄 면화의 주 생산지는 Lahore, Multan을 비롯해 아래 그림의 표시된 지역에서 파키스탄 면화의 약 80%가 생산되고 있다.

파키스탄의 면화 생산량은 2007/08년 현재 연간 1000만 베일정도이나 자국의 국내 수요량이 1200만 베일로서 매년 200만 베일을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파키스탄 정부는 섬유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면화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5년까지 2000만 베일이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종자개량, 관개 시설의 정비, 충해 대책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배 면적도 북서쪽 변방까지 총 경작지를 10%이상 확대해 350만 ha까지 추진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파키스탄 정부는 면화 시장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종자 개량을 위시하여 산업 전반적인 인프라의 정비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품종의 특수성이나 개성을 중시하기보다는 경제성을 추구하여 코스트 경쟁력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석봉)

